중국

> KIAT 산업기술정책단 [글로벌 핵심기술 경쟁 현황(진영준)]에서 경제, 사회, 안보 분여 핵심 기술을 기준으로 경쟁 현황을 조사함. 44개의 핵심기술 중 37개에서 중국이 1위, 나머지 7개에서 미국이 1위. 인공지능 관련 항목 10개 중 중국이 7개 1위.

>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, 2014 ~ 2023 기준 중국의 생성형 AI 특허출원 수 38,000건, 미국 6,276건. 딥시크(DeepSeek) 등장과 함께 AI 글로벌 생태계 오픈소스 중심지로 부상함. 중국 내에서 80개 이상의 거대언어모델(LLM)이 공식 승인. 2024년 기준 중국 내 AI 기업 수는 약 4,500개, 전 세계 기업의 약 15%.

> KOTRA 25.02.03. 중국 AI 산업 발전 현황, 규모: 글로벌 2위, 연평균 26.8% 성장. 투자: 22년 130억 달러, 27년 381억 달러로 예상, 전 세계 투자 규모의 9% 차지 전망. 특허/논문: 2012~2021 사이 AI 관련 특허 38.9만 건, 전 세계 74%, 2017~2021 사이 가장 많이 인용된 AI 논문 100편 중 중국 21편.

> The AI Report [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NIA)], 24년 중국 정부 활동 보고서에 AI+ 행동 계획 명시. AI+는 모든 산업과 응용 분야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단계.

위의 자료를 근거로 중국은 단순히 AI 기술의 산업화를 넘어 글로벌 AI 기술 패권 경쟁을 목표로 국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. 빠른 속도로 양과 질 모두 발전 중, 미국의 경쟁 상대로 급부상.

대표적 기업으론 화웨이(AI 가속기용 반도체), 알리바바(자체 개발 AI 언어모델 - QWQ), 딥시크, Zhipu(LLM개발-유니콘 기업) 등이 있음.

미국

> 미국, AI에 120조 쏟아부어... 전 세계 투자액 62% 차지(전자신문 김명희 기자, 24년 7월) 24년 기준 미국 정부와 민간의 AI 투자액은 약 120조7800억원으로, 전 세계의 62% 정도로 추정.

<https://www.etnews.com/20240709000333>

> 미국의 AI안전·신뢰성 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[SPRi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(이해수, 유재흥)],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(2016년 10월) 최초로 AI R&D 전략 계획을 최초로 수립.

<https://spri.kr/posts/view/23815?code=data_all>

> AI 서버 시장서 미국 지배력 더 강해졌다...美 빅 4 점유율 60% 넘어(한국일보 이윤주 기자, 24년 3월), 24년 기준 미국 빅테크 4개사(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아마존, 메타)의 점유율이 전세계의 63%. AI 서버에 사용되는 GPU 점유율은 엔비디아가 70%.

<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4030114000003172>

> '60% 점유율' 1위 챗GPT…AI 챗봇 시장, 2~3위는?(한경닷컴 박수빈 기자, 25년 2월), openAI의 chatGPT가 생성형 AI모델 시장 점유율 59.8%%, 2위는 MS CoPilot 14.4%, 3위는 구글 Gemini13.5%.

<https://www.hankyung.com/article/2025022855707>

> 세계 AI 패권 지도… “미국의 주도 속 중국의 빠른 추격, 한국은 일본 넘었다” (AI matters 김은영 에디터, 25년 4월), 23년 기준 국가별 AI 특허 수 및 점유율 근황 미국 39.29%.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이지만, 미국은 글로벌 시장 전반에 영향력 행사하는 반면 중국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.

<https://aimatters.co.kr/news-report/ai-report/18578/>

> 국회 선정 '글로벌 100대 AI 기업'... 한국 0개, 중국 10개 (시장경제 최유진 기자, 25년 1월),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한 글로벌 AI 기업 지형도 기준 세계 100대 AI 기업중 미국 59개.

<https://www.meconomy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07727>

중국이 빠른 성장세로 미국을 추격하고 있지만, 양과 질 모두 아직 미국이 독보적.